

#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11.22.(화)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이현숙  
유환익, 정경모, 김희중, 천경숙 9인(김세한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1. 다음 회의 일정

- 12월 일정 : 12월 20일(화) 오후 3시

### ■ 주요 내용

#### ▲ 권혁남 위원장

- 연합뉴스TV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언론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체로 뉴스가 맞  
맞하여 매운맛과 감칠맛이 없다는 느낌이다. 물론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중립성은 중요하  
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소재, 정부의 사전 사후 대책, 자세 등과 같이 국민  
의 분노가 매우 높은 이슈조차도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마치 중계방송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좋게 말해 정치 사안에 대해 각 정파의 입장  
만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중립적인 보도를 하겠다는 자세이다. 문제는 연합뉴스TV가 여야  
간 정치 대립과 갈등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중계방송 식 보도에 익숙해  
있다는 느낌이다.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허구를 주장하는 원내대표나 당대변인의 정치공세  
조차 그대로 중계방송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 주장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가  
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인 환경감시기능이다. 정치색깔이 뚜렷한 신문이나 종편처럼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채 이슈나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해석적 저널리즘  
(interpretive journalism)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것 또한 공익과 공영성을 추구하는 보도채  
널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연합뉴스TV만의 정  
체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요즘 상황 자체가 무자르  
듯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사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이  
많고요. 물론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질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재 정권만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기엔 좀 단정적  
인 측면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돼 왔던 면도 작용을 했을 거고  
요. 잘못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론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고를 놓고서 여야의 정치적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라든가 또 원인 규명 부분은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 박찬재 부위원장

<11.06 [연합뉴스TV 스페셜] 250회 : 빈집 150만 가구 '흥가'되지 않으려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150만 가구에 달하고 빈집의 증가에 따른 지역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빈집이 생기는 원인, 야기되는 문제점, 해외 사례, 제도적 미비점,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특히, 취재기자들이 직접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들(서대문구 현저동, 북아현동, 종로구 옥인동, 전남 고흥군)을 직접 방문 취재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아 방송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치안 문제의 심각성과 지역이 활기가 떨어지고 슬럼화되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집 발생의 원인(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도시재생의 이슈로 지정과 해제가 반복)과 빈집 관리의 부분(책임소재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적 한계성, 도시지역과 그 외 지역의 관리 주체의 이원화)에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성공사례와 전문가의 "10만호의 빈집을 잘만 활용해도 10만호의 공급 효과가 있고" "도심 내에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으므로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소유자의 상황과 시장의 수요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와 정부가 찾아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건강한 빈집 활용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는 말처럼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이슈들을 찾아 언론에서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제작진이 타 방송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소재를 발굴해서 시청률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빈집 150만 가구 저는 빈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숨겨져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좀 많이 찾아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 ▲ 문해주 위원

- 이번 달에는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검토내용은 연합뉴스TV를 직접 시청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한 내용과 10월 29일 23:30분 ~ 30일 00:30분까지 타 언론사를 포함한 보도('네이버뉴스'에 입력한 시간기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도가 처음 나간 것은 10월 29일 23:36분 타 언론(인터넷 신문)에서 '10만 명 몰린 이태원 '할러윈 파티'...인파에 짓눌려 수십 명 실신'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 형식으로 '네이버뉴스'에 입력하였고, 이어서 23:39분 이후 24:00시까지 거의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입력)하고 분초 단위로 후속 보도(입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뉴스'에 입력된 시간은 언론사들의 자사 홈페이지나 방송에서 입

력/보도된 시간보다 10~15분 정도 늦은 것으로 판단됨,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연합 뉴스TV가 처음 방송한 시간은 12:15분이고 '네이버뉴스'에 처음 입력한 시간은 12:26분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수차례 '속보' 형식으로 보도한 뒤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건 사고의 경우 '신속'한 보도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도가 늦어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와 '네이버뉴스' 검색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더 신속하게 보도를 하였는데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대신, 연합뉴스TV는 처음 방송 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01:12(01:47 네이버뉴스 입력)에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하여 19분 동안 사고 경위와 추정 원인, 안전조치, 지형특성, 여성 사상자가 많은 이유, 소방 대응단계, 주요조치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다른 언론과 차별화되어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보도화면의 경우 현장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지만 일부 '인터넷 신문'의 경우 화면이 불안정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간간히 비쳐져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 동영상은 서비스 운영원칙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이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재생을 막아놓음, 연합뉴스TV의 경우 충격적인 화면은 없었지만,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자이크 처리한 가운데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있고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보여 일부 불편한 점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는 모든 언론이 방송 화면을 비슷한 내용으로 송출한 것이어서 주관적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유가족과 관련자 분들에게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11.12)하였습니다. 정부의 당연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태원 인근 상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13일 보도에서 이태원 골목 인근 상인 인터뷰를 한 것은 좋아 보입니다. 차제에 연합 뉴스TV에서 코로나19 이후 이번 참사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태원 상가에 대한 르포' 방송을 하여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피해자인 이태원 상인들과 마음을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가 사고 속보를 첫 방송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다음날 12시 15분은 아니구요. 당일 밤 11시 47분입니다. 그 시각에 빨간 색으로 속보 자막이 나갔습니다. 연합뉴스나 일부 언론사들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근무자들이 판단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헬러원축제'를 보도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나가 있던 사회부 기자가 밤 11시35분쯤 총괄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왔어요. 수십 명이 실신했다면서 속보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 퇴근 중이던 총괄데스크가 바로 회사로 전화를 걸어 담당 피디에게 속보 처리하라고 했는데 담당 피디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속보처리가 지연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사에 비해 열악한 인력 구조에 기인했다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현장 기자가 그 상황을 캐치해서 회사에 보고까지 했는데 곧바로 처리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관장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속보는 늦었지만 사회부와 영상취재부의 많은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를 시작했고 뉴스 총괄부에서도 관련된 재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전화 연결하고 출연도 시키고 해서 이후 상황들은 저희가 다른 방송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장 화면이 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부분은 저희도 하루가 지나

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영상들은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블러 처리를 하거나 삭제를 해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초기 보도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시간대 긴급 상황시 대응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 정의식 위원

- 요즘 주요 인명 현장에서, CPR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최소한 고등학교 교과과정(체육 등)에 CPR 교육이 있는 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CPR 교육과장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형, 대형)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 고 교과 과정(최소한 고등학교 교과과정), 체육 등 필요한 과목에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현재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1/1 요즘 이태원 참사로 특집 방송을 하는 도중, 중간 중간 하는 광고 중에, '보람상조' 광고를 접하며, 꼭 이 시점에 해야 하는 지, 나만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인지, 상조회사와의 광고 약속 때문일지라도, 광고주에 양해를 구하고 상황이 좀 진정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마음 한편에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10/28~29 유동규 전본부장 말 중에 클라우드에 대한 보도 중, 간략한 설명을 같이 곁들인 보도 내용이 좋았던 것 같다.

- 11/5 아름다운 다큐 '형깊 원숭이'라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들의 어린이들에 눈높이에 맞춘 식단 및 놀이방 같은 식당, 사랑과 관심이 돋보이는 프로였던 것 같아 보기가 좋았습니다.

- 11/12 모기로 전염되는 뎅기열에 대한 보도 중, (모든 모기가 뎅기열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뎅기열을 일으키는 모기에 대한 실물 사진과 같이 보다 상세한 보도를 하면, 무조건적인 모기에 대한 공포, 즉 모기에 물렸을 경우 혹시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 CPR교육 부분은 일반 국민에 알릴 수 있는 리포트라든가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 상조 광고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광고 계획이라는 게 보통 40일 이상 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일은 아마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주에게 양해를 구하면 광고를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광고 담당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루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 이현숙 위원

- 박병화 김근식 등 성범죄자 출소 관련 기사, 김근식과 박병화의 출소를 계기로 성범죄자

의 출소와 관련한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 되었습니다.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조만간 출소...또 주민 불안(10.28)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곧 출소...수원주민들 항의집회(10.29) '수원 발발이 오늘 출소...법무부 "주거지 관여 불가"(10.31)"성범죄자와 살 수 없어"...박병화 '자진 퇴거' 촉구(11.1) 박병화 '두문불출'...원룸주인 "임대계약 해지 통보"(11.2) "언제까지 버틸까"...'박병화' 퇴거촉구 릴레이집회(11.3) 대학가로 간 성범죄자 박병화...'제시카법' 가능할까(11.2) 박병화 '동태 관리' 대폭 강화...개별적 관리 '한계'(11.7) 경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주변 상시 경비...10명 배치(11.8) 박병화 외출 제한시간 연장...밤 9시부터 다음날 6시(11.10) 김근식.박병화..."고위험 출소자 가석방 관련법 고쳐야"(11.11.) 기사의 대부분은 불안함으로 같은 지역에 살 수 없게 하려는 주민들의 요구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출소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 내용, 즉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출소자를 지역사회에서 퇴출시키거나 격리·통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 11월 11일 보도한 김근식.박병화..."고위험 출소자 가석방 관련법 고쳐야"라는 제목의 한국보호법무복지학회 학술대회 내용은 다른 기사와 달리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호법무복지학회 학술대회를 짧게 보도하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교정정책은 단순히 범죄에 맞는 형기만 채우고 출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를 비롯해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을 때 재범 없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때 출소해야하며, 출소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교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 대안은 있는지, 해외에 성공한 사례, 혹은 시범적이지만 고려해볼만한 사례가 있는지 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내용도 기회 있을 때 다루주면 좋겠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가 김근식 박병화 출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 하면서 출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이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체계적인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분도 일회성 리포트를 하든 아니면 저희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적으로 다루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 유환익 위원

- 전국 빈집 보도, 참신하고 획기적 기획 평가, 지난 11월6일 방송되었던 '연합뉴스TV 스페셜' 250회 "빈집 151만 가구, 흥가되지 않으려면?"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 즉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 현 시대에 매우 흥미 있는 주제였음. 특히 고령화와 지역소멸과도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높이 평가함. 동 프로그램은 현재 서울만 해도 빈집이 9만7000가구에 이르고 전국으로 보면 151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빈집이 늘어나 있고 이런 빈집들은 환경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현황 진단부터 일본의 사례, 성공사례, 전문가 인터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하였음. 특히, 짧은 방송시간이었지만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짜임새가 돋보였음. 대책부분에서 도시재생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인 측면, 즉 1가구2주택에 대

한 중과세 문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및 지원 문제, 농어촌 경쟁력 제고 문제 등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대책들을 소개해주었으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었을 것으로 평가함, 빈집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사안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통상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현재 17.5%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지역중 지역소멸위험지역이 106곳으로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음, 참고로 지역소멸지수는 20에서 39살 사이의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로서 0.2 이하이면 고위험, 0.5 이하이면 위험사회로 정의하고 있음. 지역소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역의 고령화가 지적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빈집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금번 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연합뉴스TV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안도 제시하는 쪽으로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 ▲ 정경모 위원

- 막막한 삶, 외로움을 넘어. 무대가 전하는 따뜻한 응원과 위로, 막막한 삶, 외로움을 넘어... 무대가 전하는 위로 (20221104 보도), 브로드웨이 선 '광주'...세계로 향하는 K-뮤지컬 (20221113 보도), 스테디 뮤지컬 줄줄이...연말엔 뮤지컬 한편 볼까? (20221113 보도) 지난 10월 29일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 158명(2022.11.15.기준)이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당하는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을 놀라고 분노하고 슬프게 했다. 이 참사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국가·지방정부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의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한다.

- 이태원 참사의 과연 언론의 역할 언론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를 여기 시청자 위원회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계속 참사가 나고 사고가 나는 사고에 규모 사고의 과정 하고 책임이 누구냐로 갑론을박 하다가 언론은 일 다 한 것처럼 넘어간단 말이에요. 취재 현장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니면 그전부터 축제가 일어나면 이태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많이 몰릴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텐데 과연 이 정부에서 혹은 지방 정부 경찰 소방당국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지 사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누가 책임이고 정치권의 공방이 있다 없다 그런 보도는 솔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언론은 뭘 했는지를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축제에 사람 많이 몰릴 건데 굉장히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는 식으로 보도해 놓고 사고 나니까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언론의 책

임은 쏙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 돌린단 말이죠. 다시 한 번 좀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문화연예 관련 보도는 주로 영화계 소식이나 BTS, 블랙핑크 등 K-POP 관련 뉴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장르에 대한 보도는 많이 부족했으나, 점차로 클래식, 미술, 문화재, 국악 등 다양한 장르나 주제가 다루어져서 반갑게 생각한다. 이달에는 특히 뮤지컬 보도가 많이 다루어져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외롭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응원을 통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내용의 뮤지컬이 소개되어 반가웠다. 공연예술계가 10.29 참사 이후 각종 행사를 취소하며 애도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을 통해 애도와 위로를 건넨다는 내용의 보도는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적지 않은 격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을 다룬 우리 창작 뮤지컬 '광주'가 뮤지컬의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담아낸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의 공연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매우 반가운 보도였다. 한국의 특수성을 담아낸 여러 뮤지컬이 세계인들의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며 영화, 드라마, K-POP 등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환호를 받는 가운데 창작 뮤지컬의 성과도 기대해 본다. 한편 연말을 맞아 오랜 시간동안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의 스테디셀러들을 소개한 보도도 흥미로웠다. '브로드웨이 42번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전세계적인 뮤지컬 작품들을 가족들과 함께 국내 공연장에서 보는 것도 연말을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위의 같이 뮤지컬 관련 기사들을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해 준 신새롬 기자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내며 연합뉴스TV 문화연예부문의 더 나은 발전을 기원해본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언론의 예방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말씀은 저희도 절감하고요. 이태원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돼 있는 분위기였고, 그 전날부터 이태원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보도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자들이 나가서 현장연결하면서 뒷부분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갖고는 예방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김희중 위원

먼저 초대형 참사 보도를 대상으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게 되어 너무 안타깝고 애석함. 다만 대형 참사 보도 역시 뉴스 그 자체인 만큼 당시 전개된 뉴스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함, 10.29 참사 당일 앵커 중심의 보도 일관...현장 취재 리포팅 부족 '아쉬움' 사고가 발생하면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을 구조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팩트인 만큼 그 자체가 뉴스임. 또한 생존자나 목격자 인터뷰를 통해 사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함. 특히 사고관련 뉴스는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전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리포트 되는 것이 시청자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생각함. 그러나 아쉽게도 연합뉴스TV가 참사 당일 오전까지 내보낸 뉴스에는 앵커와 전문가 대담 중심의 뉴스가 주를 이루었음. 이로 인해 연합뉴스TV는 타사 뉴스보다 생존자나 근처의 시민, 상인 등 목격자를 통한 다양한 사고 내용은 시청자에게 현장감 있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사고당사자를 보호하거나 현장 보

호 차원 혹은 자극적이지 않은 보도를 위해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부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건지 궁금함. TV뉴스의 장점은 현장성이라고 생각함. 특히 24시간 뉴스 채널은 타사보다 빠르게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전할 때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취재 리포트가 많아지길 바람.

- 10.29 참사...언론은 자기 역할 다했으나, 팬데믹을 벗어나 3년 만에 일상에서 개최된 헬로윈 축제, 답답한 비대면과 통제된 일상에서 벗어나 개최되는 만큼 일찌감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음. 연합뉴스TV도 오랜만에 일상에서 맞는 이태원의 헬로윈 풍경을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음. 리포트 내용에는 10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해 내보냈지만, 정작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리포트나 취재 꼭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대형 축제에 대한 경찰, 소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전대책을 미리 점검해 뉴스를 내보내 시민들의 주의를 관련 당국을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정작 현실에서 뉴스는 '축제를 개최한다'라는 사실만 보도하는 것에 그쳐 아쉬움이 남음. 사실 10.29 참사는 연합뉴스TV가 이태원 현장에서 헬로윈관련 스트레이트성 뉴스를 내보낸 지 꼭 두 시간 후 최초 사고 소식이 소방당국에 신고돼 더 안타까웠음. 연합뉴스TV가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있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측하고 반 발만 더 빠르게 예상되는 부분을 점검해 우리 사회가 초대형 사고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지길 바람.

- 10.29 참사...현장 모르는 시청자에게 이해 도울 수 있는 노력 필요했다. 10.29 참사가 일어난 현장은 카메라 영상으로는 길이와 넓이, 경사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음. '좁고 비탈졌다'라는 표현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지만 사실 영상도, 취재기자의 표현도 현장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음.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 시청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현장을 복원해 내보내며 당시 상황을 리포팅 했지만 연합뉴스TV 당일 현장 영상만 계속해서 내보낸 것은 아쉬웠음. 시청자들이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한 뉴스가 제공되길 바람.

- 라이브투데이 이 시각 '핫클릭'...진행방식 바꾸면 어떨지, 매일 아침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핫클릭'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이 클릭해 봤을 만한 뉴스를 묶어 내보내고 있음. 진행은 앵커가 직접 뉴스 전체를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앵커가 직접 발제하고 뉴스 내용도 직접 리포트하다 보니 같은 목소리로 2분 이상을 듣게 돼 시청자 입장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 받고 있음. 가능하다면 앵커가 발제하고 기자가 리포트하는 문답 방식으로 전환해 전하고자 하는 뉴스가 '핫클릭'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해 주면 어떨까 생각함.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사 당일날 저희도 이태원에 한 세 군데의 기자 포스트를 두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앞하고 순천향대 응급실, 피해자들이 많이 후송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목적 체육관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후송돼 있던 곳입니다. 그 세 곳에서 취재기자들 연결을 저희가 번갈아서 했는데 아무래도 기자들 숫자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급적이면 오랜시간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방송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보시기에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이런 대형 사고 보도 때 현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 '핫클릭' 코너는 다양성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아무래도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상황과 분석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CG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CG가 조금 늦게 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김세한 위원(서면제출)

- '이태원 참사' 관련 초기 속보 대응 늦어, 이번 달에는 10월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속보] "이태원서 심정지 추정 환자 50여명 발생">이라는 제목의 사고 관련 속보가 올라온 시간이 29일 오후 11시45분이었고, 다른 여러 언론사에서도 소방당국의 풀을 받아 속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의 이태원 참사 관련 첫 보도는 사건 당일인 29일에는 나가지 못 했고, 자정을 넘겨 30일 0시24분에 <이태원서 심정지 추정 환자 50여명...소방대응 3단계>라는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주말이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당직 근무자나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이 이태원 헬러윈 축제를 취재하러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연합뉴스TV 직원 중 누구라도 TV 뉴스나 포털 검색을 통해 100명 이상 사망자가 난 초대형 사고 소식을 접했다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에 기자를 보내고, 속보를 전달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TV에서 사건 현장을 전달한 것은 첫 보도 후 2시간여가 지난 30일 새벽 2시31분 <[현장연결] "이태원 압사참사 59명 사망, 150명 부상"> 기사였습니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의미 있는 단독 보도 눈에 띄어, 이처럼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후 보도한 여러 건의 단독 보도 중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와 관련된 의미 있는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단독 보도 목록 [단독] 또 고장난 야간 비상 상황관리 시스템...감찰 착수(11.3) 이화영,[단독] 상황관리관 총경급 격상했다더니...평일엔 경정 청장대리(11.3)[단독] 상황관리관 자리 비운 사이 이태원 신고만 195건(11.3) 홍정원, [단독] 수십명 근무 서울청 112상황실...팀장도 '소방' 연락받고 인지(11.4), [단독] '헬러윈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서 참사 후 삭제(11.5) 홍정원,[단독] 도착 허위보고 전 용산서장...'녹장이동' CCTV 포착(11.6) 이화영, [단독] "'글자 없는 리본 착용'; 국무조정실과 논의해 전파"(11.6), [단독] 사전대비 문건 삭제 이어 '회유' 시도까지(11.6) 홍정원, [단독] "안전보고서 목살·삭제" 진술확보...피의자 전환(11.7) 홍정원, [단독] 참사 인근 건물 80% 무단증축...단속 손놓은 지자체(11.8), [단독] "감찰·압수수색 대비"...윗선 '삭제 지시' 정황 확보(11.9) 홍정원, [단독] 보건소장 회의 참석했다더니..."자정 넘어 도착"(11.11)

특히 사건 당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서울청 112상황실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195건의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3일자 보도와, 헬러윈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보고한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정보보고서가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고, 참사 이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삭제됐고, 경찰 윗선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을 회유했다는 연속 보도를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홍정원 기자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행보에 대해 허위로 해명한 용산경찰서장이 녹장을 부리며 사건 현장에 가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최초 보도한 이화영 기자의 기사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사고 초기 보도 대응에 대해선 앞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당시 112나 119 당국에서 조차 이태원 관련 상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사회부도 11시가 넘어서야 상황을 인지했고, 즉시 당일 근무자 2명을 현장에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밤 11시50분 사회부 전원에 출근을 통보했고, 가용인력 전원을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익일 오전부터는 타 부서 인력도 동원해 협업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첫 현장 연결이 늦어진 것은 연결 장비(백팩)가 한 대밖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본부의 현장 브리핑과 시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기자 연결보다는 소방본부의 첫 브리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사망자 집계 등 브리핑 내용을 반영해 첫 기자연결을 준비했습니다.

#### ▲ 천경숙 위원

- 지금 세월호 이후에 초등학교에서는 51차시라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으로 정해진 게 35분, 40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한 1분 5분 이상 하면 1차시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 수업이 꼭 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51차시 안에는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소방재난 지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각 분야별로 두 번 정도씩은 다 지금 수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안전에 관해서 한번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연합뉴스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한 3월 4월 정도 되면 각 학교에서 그런 이제 안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그런 쪽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도 지금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들을 안전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기 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신학기 철하고 그다음에 9월 이후 이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교통 안전 정보를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제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을 시키자 라는 내용으로 지금 교육부에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모차부터 보행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주별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을 좀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과정을 뉴스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신학기철과 9월 이후에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를 정례적으로 보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부에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